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호 [루계 제23330호] 주체100(2011)년 1월 13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남포유리병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남포유리병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남포시위원회 책임비서 강양모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훈동지, 태종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지에서 남포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길춘동지,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량장균동지와 공장의 책임인원들이 맞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장에 도착하시자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을 진두지휘하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승리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흠뻑의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새해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인원들과 인사를 나누신 다음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정초부터 헌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로동자들을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남포유리병공장은 나라의 유리병문제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선 현대적인 공장이다.

공장의 로동계급과 남포시를 비롯한 련관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유리병 생산을 국산화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치렬한 돌격전을 벌려 한해에 수천만개의 각종 유리병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건설을 1년도 못되는 사이에 끝내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언혁소개설과 제품진열실, 통합생산조종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도로 자동화된 유리병생산설비들이 늘어선 작업장에서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각종 유리병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설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현대적인 유리병공장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하고 대량생산에 들어간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과 건설자, 지원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남포유리병공장은 원료의 투입으로부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됨으로써 일제화된 첨단수준의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남포유리병공장은 백규석과 장식, 규사를 비롯한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를 가지고 각이한 용도의 유리병들을 생산하는 공장인것만큼 생산전망이 대단히 크고 실리있는 유리제품생산기지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전에 늘 유리병문제때문에 마음쓰오시였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유리병공장을 건설한 결과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을뿐 아니라 포장용기문제와 관련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속망을 풀수 있게 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과 련관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안고 비상한 애국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한 결과 첨단수준의 유리병공장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우리의 힘, 우리의 자

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남포유리병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리운영에서 지점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중앙식료 및 경공업공장들은 물론 지방산업 공장들에서 더 많은 포장용기들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남포유리병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나라의 유리병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돌격대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불타는 애국심과 뜨거운 애민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 각종 유리병과 병마개를 질 좋게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질 좋은 유리병 생산을 부단히 늘이기 위해서는 공장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기술관리, 설비관리에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남포유리병공장은 우리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신념으로 간직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자기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존엄높은 선군조선에 강성대국의 문제를 달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시면서 비약과 전진의 영원한 무기인 혁명적대고조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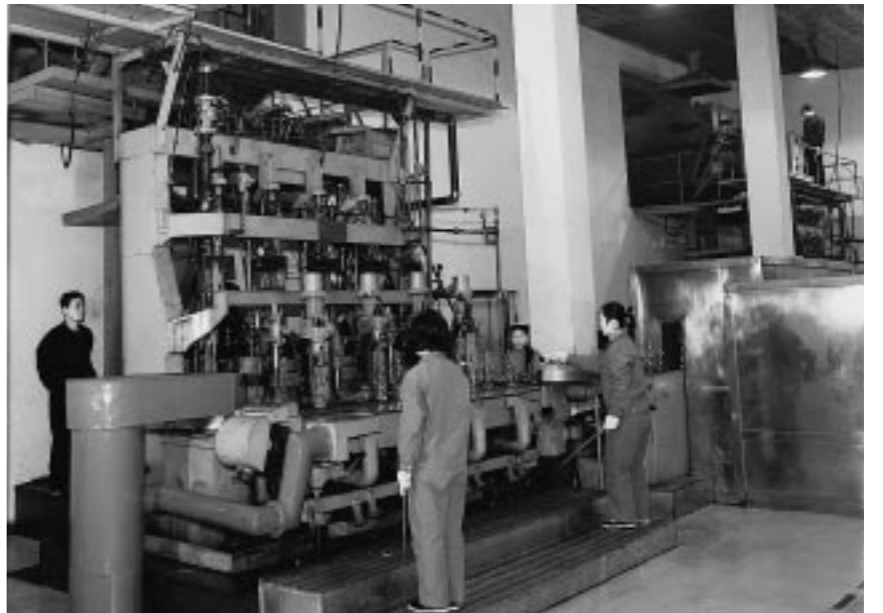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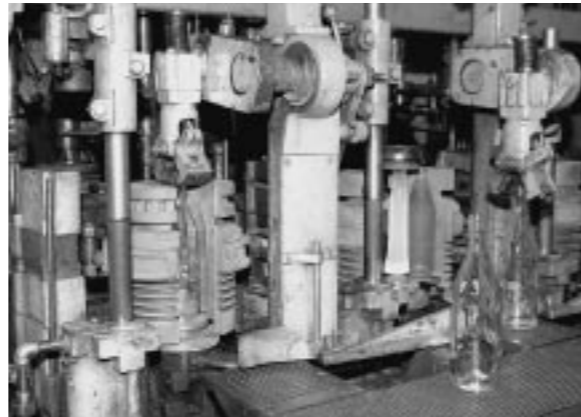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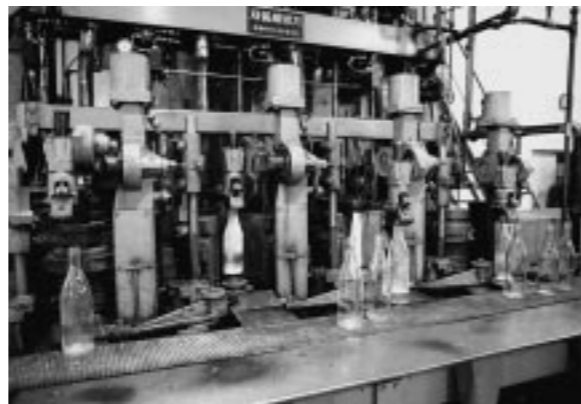
남포유리병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새해의 보람찬 전투를 몸소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정초부터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최후돌격전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지보도반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새 로 건 설 된 남 포 유 리 병 공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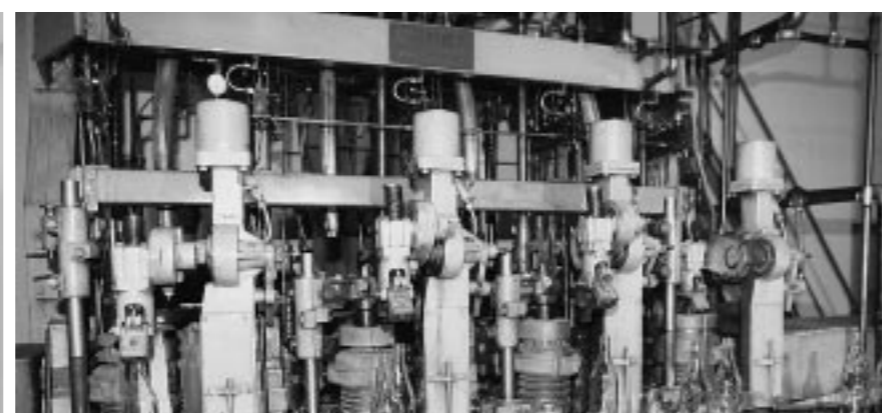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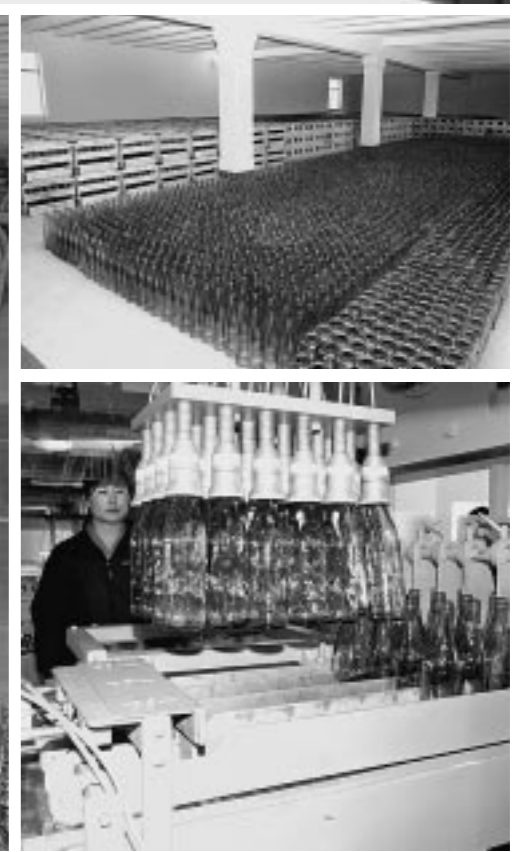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새 로 건 설 된 남 포 유 리 병 공 장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었 다



#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남포유리병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 월남공산당 제 11차대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하노이

## 월남공산당 제 11차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월남공산당 제 11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귀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따뜻한 동지적인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귀당 제 11차대회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을 더욱 높이며 부강변영하는 사회주의월남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반제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맺어진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0 (2011)년 1월 12일 평양

## 사회주의조선의 휘향한 미래를 담보해주는 선군정치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경제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높고 발휘되고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경탄을 금치 못해 하였다.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현실은 수령이 위대하면 인민도 위대해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령도로 높이 모시었기에 조선인민은 결집하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오직 수령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오수 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고계신다. 선군정치는 혁명을 성과적으로

#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라오르게 하는 밀불이 되자

### 4대선행부문, 화학공업부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켈기모임 진행

올해공공사업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가 호응하는 식탄, 전력, 금속공업, 철도운수, 화학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종업원 켈기모임들이 진행되었다. 모임들에서는 보고에 이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광복 다음 토론을 이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새해공공사업을 받아안은 인민경제 4대선행부부문과 화학공업부부문의 로동계급은 김책의 신념과 본래, 실천력으로 대고조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어있다 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대중적생산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감으로써 년간 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할것이라고 말하였다. <4대선행부부문이 기발을 들고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비약의 진척과 활짝 열려질 수 있다며 모든 경제부문에서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라오를수 있습니다.> 2. 8직종정년, 천정정년, 화공, 립식, 신리, 통일관광종업원 켈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석탄이 평양 나와야 비로와 섬유도 손이치고 전기와 강제도 나온다고 한

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발전설비들을 예호판 리하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동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 종업원들도 켈기모임을 가지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공장, 기업소들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줄것을 다짐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교수 위, 교료보수운동을 보장하며 연제구조물에 대한 보수점검을 잘 하여 전력생산을 최대로 늘일것이라고 말하였다. 평양시송배전부, 평안북도송배전부 종업원 켈기모임에서도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송배전계를 개선할것을 다짐하며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며 교차생산조직과 전기절약사업을 짜고들어 전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종업원 켈기모임에서도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책의 영웅적로동계급처럼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활활 라오르게 하는 밀불이 될것을 바라는 당의 뜻을 받들고 철강제강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다짐하였다.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주상에 따라 롱매도간석지건설이 시작되었다.

# 롱매도간석지건설이 시작되었다

## 활해남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에서

바람과 강우위에서도 그날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전에는 일선에서 보장하여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집음마다 난관을 앞을 막아내시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열정, 자동차들의 만가들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뛰고있다. 건설자들은 맨날 바다



조선은 정심하면 한다!

12월말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 부면 2만 4 000여 m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백 m의 제방과 1 500여 m의 돌방기를 진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 기세로 분발해나선 이들은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날마다 자랑한 위훈을 수놓아가고있다. **글 쓴사기자 박영남**  
**사진 쓴사기자 박명남**

# 불길굴공사에서 높은 실적 기록

## 발전소 건설장에서

들이 새로운 위훈창조로 불리 일으켰다. 현장직위부의 일꾼들은 겨울철 불리한 조건에서도 공사를 힘있게 내밀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모든 역량을 몰기굴공사와 피복공사를 집중하도록 하였다. 물길굴공사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이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돌격속도, 일당백속도로 총진전의 앞장에서 자랑한 위훈을 세겨갔다. 지난해 물길굴공사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한 선인민내무군 정장부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년초부터 총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며 기세 좋게 전진해나가고있다. 특히 훈춘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해에 해에 회천발전소건설에서 대학신, 대비약을 안아올 때같은 열의를 안고 첫 전투에서부터 단단한 혁신을 일으키며 실적을 올리고있다. 그러하여 많은 구간에 대한 콘크리트피복공사를 파격으로 끝내고 다음단계의 공사를 본래있게 내밀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의 뒤를 이어

《회천발전소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여 선군조선의 기상을 다시 한번 만방에 높이 떨칠것입니다.》  
《회천발전소의 현지말씀과 공동사업들이 높고 현실적기회부에서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양강된 열의에 맞게 올해 상반기로 끝내 다음단계의 공사물 본래있게 내밀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의 뒤를 이어

#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 연회 마련

【베이징 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11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조성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인, 무동화 중조우호협회 회장, 주석생 신화통신사 부사장, 양연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포락부 부장조리, 호정약 중국외교부 부장조리 등 관계부서 일꾼들이 초대되었다. 지체용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는 2010년은 두 나라에 있어서 뜻깊은 해였고 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두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시어 우호증진과 뜻깊은 상봉을 하고서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두 나라가 공동으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정 6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 여

# 아름차고 방대한 과업을 대중운동의 방법으로

## 재령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광산의 명줄》이라는 속도제목과 방대한 과업을 대중운동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광산의 혁명적인 분위기와 고고조시적기 하였다. 결실하고 전투적이면서 호소성이 강한 속보발간에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대중의 심정에 불을 달아주는 전투속보야말로 선동성이 강하고 실효성이 큰 정치사업의 하나라고 본 초급당비서는 일꾼들과 전투속보의 선동성을 높일 방법을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현장전투속보 발부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위대한 선전선동수단, 교양수단이 되도록 할 필요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대중의 열정을 뿜어주는 선전활동 구장군출판물보급소에서> <진한 힘과 창발성을 적극 조직하여야 한다.> 출판물보급소의 일꾼들과 보급원들은 공동사업을 받아안자마자 그 내용을 깊이 학습하고 해설선전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무슨 사업에서나 성과를 거두려면 그 사업의 주인공 대중의 정치적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주어야 그들의 무관무

# 우리측에서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었다

## 우측에서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었다

【평양 1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서 친명된 중대제안과 실천을 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담화에서 밝힌데 따라 우리 명승지총합개발지도국과 중앙특구개발지도국은 12일 남조선통일부와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단장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었다. 통지문들은 금강산관광개를 위한 회담을 2월 11일 개성에서 가질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우리측 대담 판재자 3명이 나간다는것을 통고하였

# 우리측에서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었다

으며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된 실무회담을 2월 9일 개성에서 진행할것을 제의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지난 10일 남측에 통지문과 함께 우리측은 12일 우리 판문점직접자력탐로를 다시 열고 정식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북남경제협력사업의 사무소 운영을 해하고 상주인원들을 파견하는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남측은 판문점직접자력탐로를 여는 데 대해서는 응해나오지 않고서 북남경제협력사업의 사무소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대해서는 협력자단을 구성

# 비약의 열정을 뿜어주는 선전활동

## 구장군출판물보급소에서

진한 힘과 창발성을 적극 조직하여야 한다.》 출판물보급소의 일꾼들과 보급원들은 공동사업을 받아안자마자 그 내용을 깊이 학습하고 해설선전준비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소장 김재선동무와 백선화, 한은법동무를 비롯한 보급원들은 공동사업의 체계와 투쟁과업, 그 실현방법들을 당원들과

# 우측에서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었다

으로 비롯되고있다. 한편 보급소의 일꾼들과 보급원들은 공동사업의 기본체계와 내용을 병용적직관하여 담야 균안을 단련시키고자 많이 모이는 장소에 게시하여 그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있다. 공동사업의 내용을 해설선전하는 이들의 적극적행동은 인민생활향상대진군에 펼쳐나선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